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학생의 수행능력 및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정명숙, 권영숙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Confidence

Myung-Sook Jung, Young-Sook Kwon
Dep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재교육이 간호학생의 수행능력, 지식, 태도 및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3학년 34명이었다. 실험처치 및 자료 수집은 2013년 12월 1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시행되었다. 재교육 전과 후에 간헐당 검사를 포함한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술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지식, 태도, 자신감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의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교육 전에 비해 재교육 후의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능력($p<.001$)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p<.001$),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 자신감($p<.001$)도 재교육 후 유의한 증가를 보여 융복합기반 재교육 프로그램이 졸업 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역량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핵심기본간호술, 융복합기반, 재교육, 수행능력, 자신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subcutaneous injection, indwelling catheterization) on competence,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for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34 nursing students and 3rd grade. Experimental treatment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4 to 29, 2013. Skills for subcutaneous injection including simple blood glucose test and indwelling catheterization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were measur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using SPSS version 21. As a result, after reeducation, significant improvement was found in competence ($p<.001$), knowledge ($p<.001$) and confidence ($p<.001$) in subcutaneous injection and indwelling catheterization.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program was found effective to enhance th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efore graduating nursing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develop program and to evaluate the effects with further research.

Key Words : Core basic nursing skills,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Competence, Confidence

Received 23 January 2015, Revised 6 March 2015

Accepted 20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Young-Sook Kwon(Joongbu University)

Email: yskwon@joong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1]. 학습자는 이론 교과목에서 간호지식을 익히고 실습실에서 기본간호 수행능력을 학습하여 임상실습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2].

간호현장에서는 졸업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이 대상자의 요구나 병원 등의 현장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으며[3, 4] 그 이유로는 실습교육 여건 미비, 실습교육 내용과 임상간호 내용의 불일치 및 산학간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실습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을 들 수 있다[5, 6]. Lee, Park과 Jeong[7]은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대학 졸업생들에게 요구하는 간호역량을 제시하였는데 치료적 간호역량은 전문직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과 함께 간호의 고유한 핵심역량으로 도출되었으며, 간호 관리자들은 졸업생들이 핵심술기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Byeon 등[3]에 의하면 신규 임상간호사는 기본간호술이 간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rlson, Kotze와 van Rooyen[8]은 졸업년도도 간호학생들이 전문 간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자신감 부족을 느꼈으며 수행능력을 높고 자신감을 얻도록 구조화된, 직접적인 학습 기회가 필요함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이란 간호사 직무수행에 있어 수행 빈도와 중요도가 높아 간호사 양성 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간호술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KABON)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 (20가지) 및 항목별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며,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로서[9]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0].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핵심기본간호술 연마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요구된다[10].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은 기본간호학실습교과, 시뮬레이션실습 및 임상실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실습이나 임상실습에서의 학습 경험이나 수행이 저조하고 기본간호실습에 집중되어 있어 졸업시점으로 갈수록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신규간호사가 되어 임상현장에서 적응 시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11].

핵심기본간호술은 기본간호학 이론과 기본간호실습을 통하여 저학년에서 이미 학습하여 3, 4학년 간호학생들이 숙련된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교과 과정 내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과 외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재교육 전후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에게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습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재교육이 간호학생의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셋째,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재교육이 간호학생의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넷째,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재교육이 간호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다섯째,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재교육이 간호학생의 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재교육이 간호학생의 수행능력, 지식, 태도 및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한 원시 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방 소재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3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재교육 프로그램이므로 2학년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이 포함된 기본간호학실습 교과 과정을 마친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학습 및 실습 경험이 다른 4학년은 제외하였다. 대상자 표본크기는 paired t-test 기준으로 G*Power 3.1.9 program을 통해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80, 효과크기 .5로 산출한 결과 최소 34명이 필요하였다. 연구 시행 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한 46명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들 중 3명이 재교육(실험 처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후평가에서 추가로 9명이 참여하지 않아 최종 연구 대상자는 34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개발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항목 및 프로토콜[9] 20개 중 중정도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피하주사 및 고난이도의 유치도뇨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피하주사 프로토콜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간이 혈당측정 16항목을 포함하여 총 3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히 수행' 2점, '틀리게 수행' 1점, '수행하지 않음' 0점으로 척도화 하였고 10분 이내에 슬기를 완료했을 경우 2점, 10분 초과 시 1점을 부여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측정점수는 0점에서 68점까지이다.

유치도뇨 프로토콜 47개 항목도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15분 이내에 슬기를 완료했을 경우 2점, 15분 초과 시 1점을 부여하여 측정점수는 0점에서 96점까지이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3.2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지식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에 관한 지식은 임상 경험 10년 이상의 기본간호학 교수에게 의뢰하여 고혈당의 정의,

피하주사 부위 선정, 인슐린의 종류 및 지속시간, 약물 용량 계산, 정확한 피하주사법 등에 대한 내용 10문항과 방광 · 요관 · 요도의 기능, 요배설, 유치도뇨의 목적, 유치도뇨 시 주의점, 내과적 무균법, 유치도뇨 대상자의 간호중재 등에 대한 내용 10문항, 총 20문항 객관식 형태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기본간호학 교과서들을 참고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기본간호학 교수 및 성인간호학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측정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후 측정은 사전 성취도 평가 내용과 비슷한 난이도로 문제를 수정하여 다시 출제한 것을 사용하였다.

2.3.3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태도

한국교육개발원[12]이 개발한 학습태도 측정 도구를 Hwang[13]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5 항목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른 학생보다 핵심기본간호술을 더 잘 수행하고 싶다, 실습 시간에 배운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한다, 핵심기본간호술 실습을 더 많이 하길 원한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2.3.4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에 대한 자신감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1항목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재교육 전과 후에 자가 보고형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수행능력 평가 전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4 연구절차

사전평가는 2013년 12월 14일과 15일에 실시되었으며 첫 날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태도, 자신감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1명 씩 실습모형을 이용하여 피하주사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평가 전까지는 대기실에 격리하였고 평가가 끝난 학생은 일방통행으로 퇴장하도록 하여 피평

가자와의 접촉을 통제하였다. 다음 날은 유치도뇨 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

12월 20일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에 관한 인쇄물 및 동영상[14]을 이용한 이론 교육을 2시간 실시한 후 5명을 한 조로 하여 조별로 모형을 활용하여 기본간호학 교수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실습을 시행하였다. 다음 날인 21일과 22일에 각각 피하주사와 유치도뇨 수행능력에 대해 개인별로 평가하였고 평가 직후 틀린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교육하였다.

동영상을 제공하고 실습실을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연습하도록 한 후 교육 종료 일주일 경과 시점인 28일 사후 성취도 평가 및 설문지를 작성한 후 피하주사 수행능력을 평가하였고 29일에 유치도뇨 수행능력을 다시 평가하였다.

사전 및 사후 수행능력 평가는 기본간호학 교수 1명이 하였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호학 교수 1명과 연구보조원 3명이 물품 준비, 대기, 시험장 안내, 통행제한 등의 진행을 보조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습관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재교육 전후의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능력, 지식, 태도 및 수행 자신감의 변화에 대한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32명(94.1%)이었고, 평균 연령은 21.35세로 24세 이하가 32명(94.1%)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23명(67.6%)이 '상'으로 응답하였다. 기본간호학 실습에 대한 흥미도는 24명(70.6%),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도는 28명(82.4%)이 '상'으로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학습방법은 21명(61.8%)이 '강의'라고 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N=34)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General characteristics	Sex	Male	2(5.9)
		Female	32(94.1)
General characteristics	Age(yr)	20-24	21.35±1.34 32(94.1)
		25-29	2(5.9)
Learning-related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with nursing science	High	23(67.6)
		Moderate	10(29.4)
		Low	1(2.9)
	Interest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High	24(70.6)
		Moderate	9(26.5)
Interest in clinical practice	High	28(82.4)	
	Moderate	5(14.7)	
Preferred learning method	Lecture	Practice	1(2.9)
		Lecture	21(61.8)
Preferred learning method	Practice	Practice	13(38.2)
		Lecture	21(61.8)

3.2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능력

실험 전후의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능력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이 혈당측정 및 피하주사 수행능력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40.32점에서 재교육 후 63.18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유치도뇨 수행능력도 재교육 전 51.38점에서 재교육 후 91.2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2> Pretest and posttest differences in competence in subcutaneous injection and indwelling catheterization

(N=34)

Variables	Pre	Post	Difference	t
	M±SD	M±SD	M±SD	(p)
Competence in subcutaneous injection	40.32 ±6.26	63.18 ±2.43	-22.85 ±6.53	-20.38 ($p<.001$)
Competence in indwelling catheterization	51.38 ±18.12	91.29 ±3.28	-39.91 ±17.25	-13.48 ($p<.001$)

3.3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지식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에 대한 지식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75.29점에서 재교육 후 84.85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3>.

<Table 3> Pretest and posttest difference in knowledge about subcutaneous injection and indwelling catheterization

(N=34)

Variable	Pre	Po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Knowledge	75.29 ±10.65	84.85 ±8.02	-9.55 ±11.23	-4.95 (p<.001)

3.4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태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태도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17.41점이었으며 재교육 후 16.8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205) <Table 4>.

<Table 4> Pretest and posttest difference in attitude to core basic nursing skills

(N=34)

Variable	Pre	Po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Attitude	17.41 ±2.13	16.82 ±2.06	-5.8 ±2.65	1.29 (p=.205)

3.5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 자신감

간이 혈당측정 및 피하주사에 대한 수행 자신감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7.78점에서 재교육 후 8.4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유치도뇨에 대한 수행 자신감 또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6.79점에서 재교육 후 8.15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5>.

<Table 5> Pretest and posttest difference in confidence in subcutaneous injection and indwelling catheterization performance

(N=34)

Variables	Pre	Po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Confidence in subcutaneous injection performance	7.78 ±1.31	8.49 ±1.11	-.70 ±1.00	-4.11 (p<.001)
Confidence in indwelling catheterization performance	6.79 ±1.61	8.15 ±1.39	-1.35 ±1.80	-4.36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인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재교육을 실시하고 실험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교육 전과 비교하여 재교육 후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능력, 지식 및 자신감이 증가하였고 재교육 전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행능력 및 지식 평가는 학습평가에 반영되지 않음을 본 연구 수행 전에 미리 공지하였음에도 교육 후 수행능력과 지식은 증가되었고 더불어 자신감도 향상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핵심기본간호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학습성과 성취도와 중요도 인식 연구[15]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항목이 5점 만점에 4.61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실제 학습성과 성취도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은 3.14점으로 4위에 불과하여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행능력 측정에 있어 피하주사, 유치도뇨를 위한 물품 준비는 학생들이 각자 준비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추후 수행능력 평가에 있어 물품 준비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하주사는 유치도뇨보다 수행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치도뇨가 피하주사보다 더 고난이도의 수행능력을 요하는 간호술이며 대상자에게 직접 수행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과 수행 자신감을 조사한 Han, Cho와 Won[11]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수행경험을 보면 혈당측정은 91.6%로 높았으나 피하주사는 30.5%로 낮았으며 유치도뇨는 6.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수행 자신감 또한 혈당측정 4.60점에 비해 피하주사는 3.22점, 유치도뇨는 2.6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간호학생은 아니지만 신규졸업간호사가 지각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을 5점 척도로 측정된 Kim, Hwang과 Lee[10]의 연구에서도 피하주사가 3.81(±0.71)로 유치도뇨 3.10(±0.86)보다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피하주사는 임상실습의 빈도가 시뮬레이션 실습 빈도에 비해 높았고 유치도뇨는 임상실습에 비해 시뮬레이션 실습의 빈도가 더 높았다고 하면서 대

상자들이 수행 자신감이 없다고 응답한 배출관장, 기관 절개관 관리, 수혈요법에 대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핵심기본간호술에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술기 전 과정의 평가에 필요한 시간은 각각 1인당 최소 10분, 15분이 소요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적, 시간적 제약에 의해 중간 정도와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술기를 각각 하나씩 선정하여 중재를 시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실무자 및 재교육 일정을 설정하여 고난이도의 핵심기본간호술 위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간호학생이 아닌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재교육을 실시하고 지식과 기술에 미치는 지속 효과를 파악한 Oh와 Han의 연구[16]를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한 후의 기술은 지식보다 훨씬 큰 폭으로 정확성이 저하되었고 4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재교육이 지식보다 기술 상승에 더 효과적이었으므로 반복적인 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Jho[17]는 6가지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 시행 전후 임상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하부 영역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되었으며 특히 간호기술 영역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고 하여 본 재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실습교육을 통해 기본간호술에 대한 복습과 반복적인 훈련이 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재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 실습 및 자가학습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과과정 외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행 후 사후 평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였으므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재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지니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Kim, Park과 Park[18]은 임상 시나리오 중심의 핵심간호기술 강화프로그램이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면서 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좀 더 다양한 학습 효과

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조군 없이 실험군의 재교육 전후만을 비교하였고 표본 수가 적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대조군과의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하여 효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3학년 34명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인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재교육을 실시하고 중재 전후의 수행능력, 지식, 태도 및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재교육 후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능력 및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지식 또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태도는 중재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역량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완, 개발하고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도록 제안한다.

REFERENCES

- [1] Korean Nurses Association, Learning objectives of nursing.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00.
- [2] B. H. Cho, M. H. Ko, S. Y. Kim, Effectiveness of web based learning on competence, knowledge, and confidence in foley-catheter management in basic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1, No. 3, pp. 248-255, 2004.
- [3] Y. S. Byeon, N. Y. Lim, K. S. Kang, M. S. Sung, J. S. Won, I. S. Ko, S. O. Chang, Clinical nursing competency for new graduate nurses: A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0, No. 1, pp. 47-56, 2003.
- [4] J. H. Song, M. 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 Vol. 19, No. 2, pp. 251-264, 2013.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5]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2, pp. 143-154, 2007.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25>
- [6] I. S. Kwon, Y. M. Seo,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25-33, 2012.
- [7] S. K. Lee, S. N. Park, S. H. Jeong,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4, pp. 460-473, 2012.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4.460>
- [8] Carlson, S., Kotze, W. J., van Rooyen, D. Experiences of final year nursing students in their preparedness to become registered nurses. Curationis, Vol. 28, No. 4, pp. 65-73, 2005.
- [9]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Core basic nursing skill items second edition. 2012.
- [10] Y. H. Kim, S. Y. Hwang, A. Y. Lee,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37-46, 2014.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37>
- [11] A. K. Han, D. S. Cho, J. S. Won,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2, pp. 162-173, 2014.
<http://dx.doi.org/10.7739/jkafn.2014.21.2.162>
- [12] K. C. Huh, H. W. Kim, Y. T. Cho, S. H. Im, A study of thinking ability development program(IV).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1.
- [13] Seon-Young Hwang,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the knowledge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ability, attitude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3.
- [14] Daejeon Nurses Association & Hyunmoon Publishing Co., Essential to fundamental nursing skills DVD series, 2013.
- [15] S. H. Bae, J. S. Park, The recognition of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nursing program outcom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03-214, 2013.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03>
- [16] S. I. Oh, S. S. Han, A study on the sustainable effects of reeducation 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n nurses' knowledge and skil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8, No. 3, pp. 383-392, 2008.
- [17] M. Y. Jho,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3, pp. 292-301, 2014.
<http://dx.doi.org/10.7739/jkafn.2014.21.3.292>
- [18] H. S. Kim, H. R. Park, E. H. Park, Empowerment on clinical nursing skills core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589-599, 2014.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589>

정 명 숙(Jung, Myung Sook)



- 1991년 2월 : 혜천대학 간호학 전문 학사
- 2000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8년 2월 :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산학협력 조교수

- 관심분야 : 시뮬레이션, 성인간호
- E-Mail : msjung@joongbu.ac.kr

권 영 숙(Kwon, Young Sook)



- 1989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1991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02년 9월 : Osaka University 의 학부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노인간호
- E-Mail : yskwon@joongbu.ac.kr